

소아암 환아 위해 1만배

광주생명나눔 3월 4~11일 기도 봉행

2월 16일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의 장기기증으로 생명나눔의 소중한 의미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사)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지, 이하 광주생명나눔)가 '소아암 백혈병 환아들을 위한 1만배 기도'를 펼쳐 눈길을 끈다.

광주생명나눔은 불자들의 집중 수행기간인 출가제일에서 열반제일에 이르는 3월 4~11일 8일 동안으로 소아암, 백혈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신음하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생명나눔 특별정진 기도기간'으로 정하고, 각 사찰별로 '행복한 나눔의 1만배 기도'를 봉행한다.

기도에 동참한 불자는 1배에 10원씩 적립해 환우지원금에 기부한다.

이에 앞서 광주생명나눔은 3월 1일 광주 원각사에서 '생명나눔운동선포식'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2009년 생명나눔운동 소개를 비롯

해 어린 환아에게 치료비 지원금을 전달하고 자매결연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전남지역 13개 사찰이 참여해 행복한 나눔의 108배 정진기도의 시작을 알리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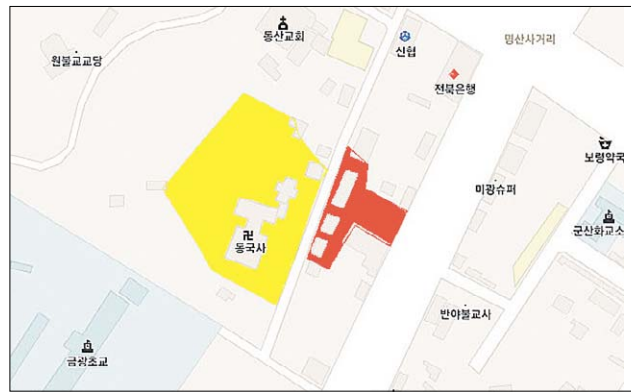
특히 이날 선포식에는 호남대학교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모금한 120만원이 전달돼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현지 스님은 "부처님 출가제일부터 열반제일까지는 사찰마다 기도 정진하며 출가의 올바른 의미와 열반에 이르기까지 법을 설하신 큰 공덕을 생각해야 하는 기간"이라며 "행복한 나눔의 1만배 기도를 통해 부처님의 참 뜻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고 병고의 아픔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희망의 기회를 달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문화재 사찰 앞에 교회?

군산 동국사 불자들 '반발'



동국사 인근 지도. 오른쪽 붉은 부분은 교회 신축 예정 부지다.

국가등록문화재 제64호 군산 동국사 대웅전과 전북도 유형문화재 제213호 동국사 석가삼존불 등 2건의 문화재를 보유한 군산 동국사 앞 1263㎡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9층(높이 약 40m) 규모의 대규모 교회 신축예정돼 동국사와 군산 지역 불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국사 앞 공터에 신축 예정인 대형 교회건물은 인근 영화교회 신축예정지로 동국사와는 폭 8m 길을 사이에 두고 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리다.

동국사 관계자는 "시공 중 지하굴착으로 인해 동국사 축대(약 90m)가 진동에 의해 무너질 우려가 있고, 동국사 대웅전이 목조문화재인 점, 석가삼존불이 조성된 지 400년이 지난 소조불상인 점, 조망권과 일조권이 아주 없으므로 경관 및 문화재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공사장의 소음과 완공 후 교회 집회시의 소음이 불교의 수행환경에 심각한 공해를 유발할 가능성 등이

문제"라고 말했다. 동국사는 이같은 상황을 문건으로 정리해 군산시에 전달해 신축허가 불가 통보를 이끌어냈다. 하지만 영화교회측은 이에 불복해 전라북도에 이의신청을 통해 재허가신청을 내는가 하면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동국사 관계자는 "공사가 강행된다면 동국사 신도회는 물론

군산 사암연합회, 지역불자, 주민들과 연대해 공사를 저지하고 종단차원의 법적투쟁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국사는 전통사찰 지정 신청을 하고 전라북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213호인 동국사 석가삼존불을 비롯해 복장유물 333점을 국가보물로 승격 요청해 문화재청이 심사 중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불교 청소년 지도자 이택희 포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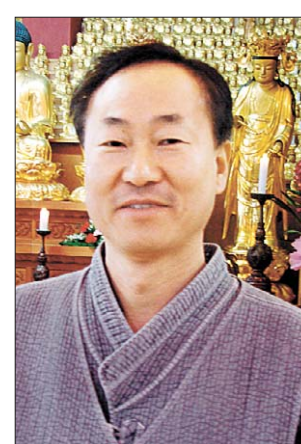
청소년 위한 '문화알기 골든벨' 인기

이택희 포교사가 처음 불교를 만난 것은 대학시절인 1976년에 홍윤식 교수에게 '한국사상사' 강의를 수강하면서부터다. 이후 이 포교사는 불교에 심취해 전공인 국문학보다 많은 불교관련 책을 접하게 됐다. 그 인

체로도 실시했다. 해마다 봄과 가을이면 사찰을 중심으로 문화답사를 실시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불교사상과 불교문화를 전하고 일본 교토, 나라, 오사카, 대마도, 큐슈등지의 백제불교문화 답사여행을 추진했다.

연으로 군 복무도 육군중앙법당에서 법회부장을 맡아 병과 부사관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기도 했다.

파라미타 활동 중 문서포교의 필요성을 절감한 이택희 포교사는 '파라미타'라는 지역소식지 자비로 발간 중이다. 매월 200부를 발행하는 '파라미타'는 전북도내 80여 개 학



이택희 포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단에 선 후에도 1990년 화엄불교대학에 입학해 체계적인 불교 공부를 했다. 이후 원광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1992년 조계종 포교사로 임용된 후부터는 적극적인 포교 활동을 해 지금은 전주전북포교사단 지역봉사팀장으로 포교일선에서 활동 중이다.

이 포교사는 1991년 6월에 이리불교대학 개교 때부터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인연으로 14년간 교무처장을 맡아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사 업무를 전담했다. 교무처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이리불교대학을 비롯한 지역 불교대학 여러 곳에서 불교사 등 여러 교과를 강의하고 있다.

이 포교사는 이 밖에 조계종 불교청소년지도자, 익산신도연합회 청소년국장, 전북불교문화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문인협회 익산지부 부회장(수필가, 시조시인), 익산수필문학회장, 익산교원항로문화연구원 회장, 가람기념사업회 상임이사, 고도익산세계문화유산 추진위원, 익산신문화재단 추진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문화를 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저소득 가정 · 소년가장 후원

고창복지관 · 신한장학재단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관장 무궁)은 2월 23일 복지관에서 신한장학재단,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과 연계해 고창지역 저소득 가정 청소년 5명과 소년소녀가장 1명에게 장학금 · 결연후원금을 전달했다.

신한장학재단과 함께하는 2009년 신한장학금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창지역 학생에게 지급됐다. 중 · 고등학생에게는 급식비와 자원봉사활동 등 프로그램, 교육용 컴퓨터 지원 이, 대학생에게는 입학금 · 등록금 · 교재비 등 학업보조비 전액이 지원됐다. 이와 별도로 지역의 소년소녀가장 1명에게는 조계종사회복지재



무궁 스님이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단에서 매일 25만원이 지원된다. 무궁 스님은 "평등한 조건에서 자라야 할 청소년들이 가정생활의 어려움으로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 장학금을 지원해 급하게 됐다"며 "장학금 지원을 계기로 구김살 없이 밝게 사회의 큰 재목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소방차 배치

금산사 등 5곳

김제 금산사 등 전라북도내 유명 사찰에 소방차가 배치된다.

전라북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손은수)는 최근 도내 중요 사찰의 목조문화재 보호, 사찰 안전 확보와 불철 산불 발생시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전국 소방서의 불용 소방차를 도내 사찰에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소방차가 배치되는 곳은 김제 금산사, 부안 내소사, 고창 선운사, 완주 송광사, 정읍 내장사 5곳이다.

손은수 본부장은 "사찰에 비치된 소화전만으로는 초기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 일선 시군과 함께 불용 소방차를 사찰에 사찰 안에 상시 배치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진압훈련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담양군민 평안' 기원법회

담양불교사암련

대나무의 고장인 전남 담양불자들이 모여 화합과 번영을 위한 만남의 장을 펼쳤다.

담양불교사암련(회장 신원)은 2월 21일 담양문화회관 대강당에서 '나라의 융성과 담양군민의 평안'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암도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 담양 마하무량사 회주), 한담 스님(문사수법회 회주), 신원 스님(담양사암련회 회장, 보광사 주지), 담양군의회 양대수 의장, 담양신도회 송진현 회장을 비롯해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암도 스님은 "생활을 잘하는 것이 불교이며 이를 위해 생각이 반듯해야 한다"며 "팔정도 잘 이해하고 실천하길 바란다"고 법문했다.

법문에 앞서 제4대 신임 회장에 취임한 신원 스님은 인사말에서 "담양 불자들이 모여 한목소리로



2월 21일 담양문화회관에서 봉행된 '담양군민 평안' 기원법회.

지역발전을 이야기 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불자로서 자긍심을 갖고 열심히 정진하자"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법회는 담양사암련회 신임임원으로 수석부회장 정보 스님(천불선원), 부회장 상원 스님(연화사), 총무 진덕 스님(화심사), 재무 법수 스님(월정사), 교무 정각 스님(마하무량사), 감사 자각 스님(자비암), 호법 각원 스님(무량사)이 각각 임명됐다. 또 담양신도회장으로 호남일보 대표 송진현씨를 비롯해 신도회 임원들도 임명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사암련 '금강경' 강좌

(사)광주불교사암련(회장 성오)은 3월 18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광주불교사암련 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경전강좌를 시작한다.

<금강경>을 시작으로, 성오 스님을 비롯해 사암련회 소속스님들

이 강사로 나선다. 접수는 3월 15일 까지이며 각 사찰 신도 및 수행단체와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다. (062)373-3223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기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 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를 왕왕 사업변환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슬이 달려 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능)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잘오고 불경기에도 흥황을 누리며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걸음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문의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2009년 제일 힘든 나기는 삼재시작! 나가는 삼재화를 소멸하고 승리하는 비방!

2007년 드는삼재 2008년 목는삼재 2009년부터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띠,뱀띠,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마지막 삼재해로 각별히 조심하고 자중자해야하며 근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2009년 가는 삼재조심 소띠,뱀띠,닭띠

제일힘든 떠나는 삼재소멸과 365일 무탈 발원 금강저

지내야 한다. 드는해와 목는해에 소띠,뱀띠,닭띠생들이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 문제에 휘말려 고통받고,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실패하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는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09년말까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완벽한 비방을 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중 삼재화를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중생들에게 부처님법구인 금강저를 품에 지니고 다니게 하고 나가는 삼재해에는 365일간 삼재소멸 불공과 무탈기원을 합니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자해야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

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는 제일 어렵다는 나가는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드립니다. 금액45,000원 문의 (02)741-4488 입금농협: 032-12-193445 이상하

1929년생 뱀띠	1957년생 닭띠	1985년생 소띠
1933년생 닭띠	1961년생 소띠	1989년생 뱀띠
1937년생 소띠	1965년생 뱀띠	
1941년생 뱀띠	1969년생 닭띠	* 적색 글씨에 해당되는 분은 약삼재입니다.
1945년생 닭띠	1973년생 소띠	
1949년생 소띠	1977년생 뱀띠	
1953년생 뱀띠	1981년생 닭띠	

천연백수정 108 염주

승리의 염주,행운의 염주,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정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정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 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특별선물 : 단주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사라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원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와 시판기간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능) 문의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